

“A형간염 환자 발생 증가, 예방수칙 준수 당부”

- 2019년 A형간염의 신고 환자가 30~40대, 서울·경기지역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, 잠복기가 15~50일로 길어 보건당국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도 뚜렷한 원인을 찾기 어려움을 지적
- 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최선
-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2019년 A형간염 신고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함에 따라, A형간염 예방을 위해 **음식 익혀먹기 등 안전한 식생활을 당부하고, 고위험군**은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고.**
 - 2019년 1월부터 4월 28일까지 A형간염 신고건수는 3,597명으로 전년 동기간 1,067명 대비 237%로 증가하였으며,
 - * 연도별 신고건수 : '16년 4,679명 → '17년 4,419명 → '18년 2,436명 → '19.4.28. 3,597명
 - 지역별 신고환자 수*는 경기, 대전, 서울, 충남 순이나, 인구 10만명당 신고건수**는 대전, 세종, 충북, 순으로 높음
- 최근 A형간염 환자들 중 30~40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**낮은 항체양성률과 관련이 있을 것**으로 추정
 - 이는 과거에는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, 어릴 때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앓고 지나갔으나, 위생상태가 개선되면서 19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어릴 때 A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**항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**
 - * 6세 미만 소아에서는 70%가 무증상이고 약 10%에서 황달이 발생하나, 연령이 높아질수록 70%이상 황달이 발생하고 증상이 심해짐
 - 따라서,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*이 없는 30~40대는 특히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주의가 필요
- 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끓인 물 마시기, 음식 익혀먹기,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, 올바른 손씻기 등 A형간염 예방수칙 준수
 - 아울러, 12~23개월의 소아나,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만성 간질환자, 외식업종사자, 의료인,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 **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이나 성인은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**
 - * 2012년 이후 출생자는 보건소 및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 없이 무료접종 지원
 - * 9세 이상(2011.12.31. 이전 출생자)에서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는 자 중 A형간염에 대한 면역을 얻기 원하는 경우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 가능

◀ A형간염 예방수칙 ▶

○ 일반적인 예방수칙

-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
- 끓인 물 마시기
-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여 익혀먹기
 - * 85℃이상에서 1분간 가열, 조개류는 90℃에서 4분간 가열
- 채소,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먹기
-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
 - * 조리기구는 구분하여 사용하고 조리 후 소독,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

○ 예방접종 권장

- 12~23개월의 모든 소아
-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* 소아청소년이나 성인

| * 고위험군 | |
|-------------|--|
| 질환별 | ·만성 간질환자, 간이식 환자, 혈액제재를 자주 투여 받는 혈우병 환자 등 |
| 직업 및 상황별 | ·외식업종사자, 보육시설 종사자,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의료인 및 실험실 종사자 |
| | ·A형간염 유행지역 여행자 또는 근무 예정자, 남성 동성애자, 약물 중독자,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의 접촉자 |

- 이외에도, 소아청소년이나 성인에서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,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는 사람 중 A형간염에 대한 면역을 얻기위해 원하는 경우 접종할 수 있음